

한 알의 밀

A Grain of Wheat

요한복음 12:20-26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2년 4월 1일 종려주일 설교

²⁰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²¹저희가 갈릴리 벳새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뵈옵고자 하나이다” 하니 ²²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²³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²⁴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²⁵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²⁶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종려주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영어로 팜 썬데이 (Palm Sunday)인데 손바닥 팜이 아니고 종려나무 팜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세 해 동안 전하신 다음 십자가를 지시기 한 주 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때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 부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일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하고 있지만 (마 21:1-11; 막 11:1-11; 눅 19:28-40)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다는 말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신약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한 번, 그리고 역시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에 한 번 (계 7:9), 이렇게 종려나무가 꼭 두 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외쳤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어 말하기를 제자들이 그 때는 이 사건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비로소 이 사건이 스가라가 예언한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깨달았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다는 뜻이겠지요. 성령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그걸 또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록된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를 또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 사건을 보통 “승리의 입성 (Triumphal Entry)”이라 부릅니다. 주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게 마치 옛날 왕들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 말을 타고 승리의 행진을 한 것과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스가라의 예언에도 나귀를 타실 분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으니 일리는 있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다고 하지요. 말이 전쟁의 상징인데 반해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고, 세상 왕은 무력으로 정복해 이기지만 주님은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어 승리하신다, 하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나 다른 복음서도 이긴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 사건을 “승리의 입성”이라 부르는 것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종려 가지는 우선 유대인들에게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주전 이세기 쯤 안티오크 사세 (Antiochus IV)라는 왕이 유대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왕은 유대 풍습을 금지시키고 유대인을 대대적으로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다 마카베오 (Judas Maccabeus)의 지도로 반란을 일으켜 박해하던 안티오크 군대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장악했습니다. 그 때 승리의 입성을 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카비상 13:51). 또 예수님이 사시던 때가 로마제국 시대였는데 그 때 로마에서도 승리자에게는 종려나무를 상으로 주었습니다. 유대인 전통에서도 로마 문화에서도 종려가 승리의 상징이다 보니 승리의 입성이라 부르게 된 겁니다 (Virgil, *Aeneid*, V, 70, 519.).

사람들의 기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날 거대한 군중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데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제국에 속해 있습니다. 헤롯 왕이 로마의 허락을 받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나라 없는 백성입니다. 우리 역사로 치면 일제 치하입니다. 바라는 건 오직 하나 나라의 독립입니다. 얼른 이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내 나라를 되찾는 게 꿈인데 아 예수라는 분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셨다는 소문이 들립니

다. 얼마 전에는 죽은 사람까지 살리셨다고 합니다. 이런 분이려면 우리 꿈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좀 읽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나귀새끼를 타신 것을 보고는 이 분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유다의 왕은 나귀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왕, 우리를 이민족의 압제에서 건져주실 분이 드디어 오셨구나, 그런 기대감으로 환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친 구호도 그런 염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만 공통된 내용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편 118편을 인용한 것인데 (25, 26절)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 하는 말입니다.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이방의 압제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말할 때 마태, 마가복음은 “다윗의 자손”을 강조하고 누가, 요한은 예수님이 지금 “왕”이 되어 오신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바리새인들이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른다” 하고 한숨을 쉬었을 정도입니다.

그리스인의 방문

바리새인들이 한숨을 쉬었다 한 다음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 나오는 그 사건이 무슨 뜻인지, 거기 담긴 뜻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그걸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선 그리스 사람 몇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구약 통독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이들은 이방인이지만 자기 지역으로 흩어져 온 유대인을 통해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긴 했지만 예수님을 환영한 무리에 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리의 관심은 유대 나라의 독립이니 이방인이 거기 낄 까닭이 없었습니다. 혹 예수가 누구신지 궁금해 가 보았을 수는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조금 전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무리와는 다른 뜻으로 예수를 찾아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 나라를 독립시켜줄 지도자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오늘도 죄와 고통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 죄와 고통에서 건져주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분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 그 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가던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먼 예루살렘에 와 있을 때 오신 것 같습니다. 어찌 가만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우선 제자 빌립을 만나 말했습니다. “주님, 예수를 뵈고 싶습니다.” 우리말로 “선생이여” 하고 번역했는데 원문은 “주님”입니다. 적어도 “어르신!” 정도는 되는 아주 공손한 표현입니다. 혹 이 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다 생각해 그렇게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주님을 찾는 이들의 간절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에게 바로 가지 않고 안드레에게 또 말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참 어렵지요? 경호 시스템이 철저합니다. 사람들이 하도 몰려드니까 망설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쨌면 아무래도 이방인이니까 조심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 둘이 함께 예수께 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그리스 사람 몇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는 말이니, 내가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하신 겁니다. 조금 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 부르면서 구원해 달라 구호도 외쳤으니까 이제 왕이 되어 그 요구를 들어줄 때가 되었다는 말 같습니다. 아니지요. 이 말씀은 유대인 아닌 그리스인들이 있는 앞에서 하신 겁니다. 이어 하시는 말씀을 보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사람들이 기대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한 알의 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말로 “밀”이라 옮겼습니다만 원문은 그냥 “곡식”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곡식”을 가리키던 그 말입니다 (마 13:25-30). 밀도 되고 옥수수도 되고 알곡이면 됩니다.

주님이 “진실로” 하고 말씀하시면 그건 중요한 겁니다. “진실로”를 두 번 거꾸 쓰셨으니 아주 중요한 말씀, 두 배로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똑같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다 “진실로”하고 한 번만 쓰는데 요한은 꼭 두 번 거꾸 씁니다. 잉크가 남아돌았거나 아니면 강조하고 싶은 게 많았겠지요.

농사 이야기를 다시 하시는데 전에는 씨를 뿌리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하시더니 이번에는 그렇게 풍성한 열매가 어떻게 해서 맺히는지 그 원리를 설명해 주십니다. 바로 땅에 뿌리는 그 씨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가 안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씨 자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처음 있던 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아래로 뿌리가 나고 위로는 싹이 나 줄기, 가지가 되어 열매가 맺힙니다. 곡식 같으면 더 많은 곡식이 맺

히겠지요.

여기서 “한 알의 곡식”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우리 주님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셔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자연 법칙에 빗대 말씀하신 겁니다. 보통 곡식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고 하지는 않지요. 그냥 없어진다, 썩는다. 그런 말을 쓰는데 주님은 당신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많은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내가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우리 주님의 영광이 뭐니까? 왕이 되어 유대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내는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는 것 아닙니다. 그걸 좋아한 사람들이 전에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나무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는 영광, 곧 구세주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런 다음 사흘 만에 다시 살아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영광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구원의 입성이요 영광의 입성입니다.

영생의 길

주님이 이어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 하도록 보존하리라.”

방금 하신 말씀을 일반화시켜 모두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러니 이건 주님 당신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한테, 우리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제 목숨을 사랑하면 잃는다 하시는데 일단 좀 두렵습니다. 제 목숨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면 다 잃을 거라 하십니다. 목숨을 사랑하는 건 사는 걸 말합니다. 살고 싶은 거지요. 목숨을 미워하는 건 사는 걸 미워하는 거니 죽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하신 말씀하고 통합니다 (마 10:38).

살면 죽고 죽으면 산다. 주님이 누누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로 언제 하셨느냐 하면 십자가와 연결해 하셨습니다. 죽어서 사는 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마 10:37-39; 16:24-25; 막 8:34-35; 눅 9:23-24; 14:26-27)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죽어야 삽니다. 살면 죽고 죽으면 사는데, 처음 목숨과 뒤의 목숨이 다릅니다. 죽는 건 이 세상의 목숨입니다. 지키든 버리든 한 세상으로 끝나는 목숨입니다. 그런데 그걸 버려 얻는 목숨은 영생입니다. 내가 미워하고 버린 그 목숨,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덧없는 그 목숨을 다시 얻는 게 아니라, 한 번 얻으면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생명입니다. 어차피 없어질 생명 그거 안 잃으려고 발버둥 쳐도 결국 잃고 말지만 그걸 과감하게 내던지는 사람은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 뜻이라면 조금 전에 하신 한 알의 곡식에 대한 말씀도 주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 한 개가 여러 개가 된다는 숫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곡식 한 알의 가치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알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만있으면 됩니다. 한 알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곡식은 하기에 따라 풍성한 열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땅 속으로 들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한 알 그게 없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풍성한 열매가 됩니다. 그대로 죽어버린 줄 알았더니 오히려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가 됩니다. 그게 곡식입니다.

열매 맺는 삶

한 알의 곡식에 관한 말씀이 주님 당신에 관한 말씀이고 이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그 다음 말씀은 이 둘을 하나로 엮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 다 주님을 섬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이 동으로 가시면 우리도 동으로 가고 주님이 남으로 가시면 우리도 남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안 놓치고 잘 따라가서 주님이 영원히 계시는 거기 우리도 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눈에 안 보이시는 주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광을 얻으신 다음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성령으로 살면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건 곧 주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실 겁니다.

주님이 한 알의 곡식이 먼저 되시면서 우리에게도 곡식이 되어야 된다 하십니다. 한 알 그대로 있으면 망하니까 안 되고 열른 죽어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안 죽은 곡식,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곡식, 십자가를 지지 않은 곡식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 인격과 삶으로, 사람됨으로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 21:43). 바리새인한테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자라 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경고를 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 7:21).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 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영한 사람 가운데는 몇이나 주님을 믿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 전통에 따라 아니면 로마 문화에 따라 정치적인 승리를 염원했다면 안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도 성경에 따라 흔들었다면 주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을 지키라 하실 때 초막을 만들 재료로 종려나무를 쓰라 하셨습니다 (레 23:40; 느 8:15). 초막절은 출애굽, 곧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던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또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 하실 때 성전 안 네 벽과 성소 및 지성소 출입문에 종려나무를 새겨 넣으라 하셨습니다 (왕상 6:29; 겔 40, 41장).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로 성전이 되어 오신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 것입니다.

“호산나”를 외친 사람 가운데도 그냥 이 땅의 목숨만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주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이 시편 말씀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향해 이 말씀을 외친 건 백번 맞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오해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시편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몰라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바로 우리 주님을 가리켜 한 예언입니다. 우리 주님은 건축자들이 기대한 것과는 다른 돌입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습니. 사람들이 기대한 것과는 다른 것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라의 독립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주님을 안 믿습니. 그런데 그 주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 사람이 꿈도 꾸지 못한 엄청난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주십니다.

주 예수를 따라

주님은 한 알의 밀알이 기꺼이 되셨습니.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습니.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이, 또 주님을 찾아온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가 다 그 열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곡이 될 차례입니다. 우리는 주님 처럼 나 하나가 죽어 여럿을 살리는 그런 일은 못 합니.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것이어야 겨우 내 한 목숨 건지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얻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죽어 다 해 주셨습니. 우리는 주님 흉내만 내면 됩니다. 따라 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다 곡식입니다. 너도 한 알 나도 한 알입니다. 우리 이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끼고 챙기고 잘 돌봐줄 수 있습니다. 맛있는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고 남보란 듯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영원히 있습니까? 아니지요. 덧없는 목숨입니다. 주님 비유를 갖다 대자면 밭에 밭힐 수도 있고 또 새가 와서 먹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 5:13; 13:4).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영원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지요. 그런데 가만 두면 안 죽습니. 죽으려면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했는데 원문은 “땅 속으로”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땅은 곡식을 심는 곳이기도 하지만 죽은 사람을 묻는 곳이기도 합니.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곡식은 땅 속에 들어가면 죽습니. 그래서 많은 열매가 되어 나타납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 땅에 묻힙니. 그러면 많은 열매가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열매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맺을 수 있습니다. 맺어야 됩니. 많이 맺어야 됩니. 그렇지만 진짜 열매는 죽음 너머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땅에 떨어져 죽는 일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는 열매도 되겠지요. 그러나 진짜 열매는 믿는 우리가 마지막 날 경험하게 될 부활입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요 5:29). 그게 참 열매입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이 죽어 땅에 묻히는 것을 씨를 심는 일에 비기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

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고전 15:36-38). 농사 이야기가 아니라 땅에 묻은 몸이 어떻게 부활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고전 15:42-44). 주님이 먼저 죽으시고 먼저 부활하여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전 15:20). 둘째 열매, 셋째 열매도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도 몇 십억 번째 열매가 될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겠지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를 풍성한 열매로 거두시려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어주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게 될 건데 그 때 손에 밀 들고 할 건지 혹 아십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계 7:9-10).

종려나무 가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상징이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함께 누릴 영원한 생명의 상징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이 바로 그걸 알고 주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죽어야 사는 진리,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진리,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진리,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진리입니다. 왕이 되는 게 영광이 아니라 죽는 게 영광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죽어야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이 가르침을 오늘 종려주일에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권수경 목사)